

비전 성남

Vision Seongnam

8

2012년 7월 25일
통권 제205호



스마트폰으로 비전성남 보기

-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검색 후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남시청 보기

- 성남시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eongnam.go.kr>
- 스마트폰에서 '성남시청' 앱 다운 받기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관

주 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월1회(25일경) 발행됩니다.
구독신청하시면 무료로 집까지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무료구독신청 031-729-2075~6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탄천 야탑동 물놀이장

성남은 여름 물놀이 천국!

탄천 · 공원 · 놀이터 20곳 물놀이장

9월 2일까지 운영

성남시 곳곳에서는 지금 물놀이가 한창이다.

탄천 5곳을 비롯해 공원 5곳과 놀이터 10곳에 물놀이장이 개장돼 꼬마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벽천분수, 놀이대, 발지압장, 워터슬라이더 등 놀이 시설과 편의시설도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매주 월요일(능골공원은 일요일)은 쉬니 참고하자. 올 여름 피서, 이곳 성남에서 즐겨보자.

하천관리과 031-729-4344 공원과 031-729-4274

※ 20곳 물놀이장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본시가지 · 분당구 ‘교류의 문’ 열다 ‘재능나눔’ 동(洞) 간 자매결연 발대식 가져

성남시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본시가지와 분당구 사이의 교류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성남시는 수정 · 중원 본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주민들이 지역화합과 재능나눔을 위한 동(洞) 간 자매결연 발대식을 7월 10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4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위 단체장 · 회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관 주도가 아닌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시민행사로 진행됐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동아리 공연, 자매결연 협약서 전달, 자매동 간 재능나눔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등 행사가 열렸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 자발적 개최

자매결연을 맺은 본시가지 27개 동과 분당지역 21개 동은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지역화합 · 균형발전 · 재능나눔’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서로 재능나눔, 주민자치센터 작품 공동 발표, 프로그램 교류, 저소득층 학생 후원 기부 희망자 발굴,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공동이용, 지역 간 축제 · 체육대회 공동개최 등이 주요 교류 내용이다.

재능나눔 · 지역화합 · 균형발전 교류

이날 성남시장은 앞으로 “본시가지인 수정 · 중원구를 분당 · 판교에 버금가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물리적 작업과 함께, 주민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공존,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 단위 단체 상호 간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앞서 수정(16개동) · 중원(11개동) · 분당구(21개동) 각동 주민들은 각각의 자매결연 희망동을 협의해 지난 6월 본시가지와 분당지역 동 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한편, 시는 주민 간 ‘유 · 무형의 재능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능나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5

■ 본시가지=분당지역 동(洞) 간 자매결연 체결현황

	본시가지	분당지역		본시가지	분당지역
1	신흥1동	야탑3동	15	고등동	판교동
2	신흥2동	금곡동	16	시흥동	이매2동
3	신흥3동	삼평동	17	성남동	정자3동
4	태평1동	서현2동	18	중앙동	분당동
5	태평2동	분당동	19	금광1동	구미동
6	태평3동	야탑3동	20	금광2동	금곡동
7	태평4동	수내3동	21	은행1동	야탑2동
8	수진1동	구미1동	22	은행2동	정자1동
9	수진2동	정자2동	23	상대원1동	운중동
10	단대동	수내2동	24	상대원2동	구미동
11	산성동	수내1동	25	상대원3동	서현1동
12	양지동	정자1동	26	하대원동	이매1동
13	복정동	백현동	27	도촌동	야탑1동
14	신촌동	서현1동			

※ 2개 동과 결연 : 분당동, 정자1동, 서현1동, 야탑3동, 금곡동, 구미동



Ⅰ 행정 혁신 Ⅰ

성남시 일자리 창출 ‘최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성남시가 ‘2012 전국 기초자치도시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해 6월 27일과 28일 창원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초자치단체 77곳이 청렴 · 일자리 · 매니페스토 활동 · 공약이행 등 4개 분야에서 각각의 사례를 발표하고, 최종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성남시는 ‘시민기업’을 중점 육성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위탁, 상수도검

침, 성남시민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17개 시민기업에 426명 일자리 마련, 임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고, ‘성남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낸 세금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시민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매니페스토 수상을 계기로 성남시민기업은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을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031-729-2152

제1공단 부지에 시민공원 들어선다

대장동 구역-1공단 결합개발 '본격 추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대 제1공단 부지(8만4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5월 29일 해제되면서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이 불투명해졌고, 이를 방지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91만㎡)과 제1공단 부지(8만4천㎡)를 결합개발할 방침이다.

‘결합개발’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방식이다.

지난 6월 27일 민선5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는 하반기 최대 핵심사업으로 대장동 구역과 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장기간 황물로 방치된 1공단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본시가지 환경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성남시는 평지공원이 없는 본시가지의 상황을 감안해 도심자연공원을 만들어 50만 수정·중원구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곳 부지에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주변상권 부활 등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원·검찰청은 부지 협소와 대체부지 부재로 인해 본시가지 외 이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곳이 본시가지에서 빠져나갈 경우 본시가지는 경제적 위험에 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시는 공원화된 1공단 부지 일부를 법원·검찰청 부지로 매각하거나, 현 법원·검찰청사 인근부지를 편입해 확대 재건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1공단 부지 일부를 임시청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법원·검찰 측과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성남1공단 공원화 T/F팀 첫 회의

시는 1공단 부지의 결합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원화 T/F팀을 구성, 7월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시장을 T/F팀 총괄팀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원조성, 도시개발 분과별 팀장을 국장급으로 해 총 22명의 대규모 인력이 참여한다.

시는 시 예산의 부담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식에 대해 시의회와 토지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결합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추진과 택지지원팀 031-729-4513

노상방담(路上芳談) 개최 안내

시정 주요 현안인 제1공단과 관련해 시민 여러 분과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성남 제1공단 부지 활용 방안
- 일 시 : 2012년 8월 2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희망대공원 야외무대 (우천 시 별도 선정)

- 참여대상 : 참여신청 시민, 관계 공무원
- 신청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 팝업창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상단의 '참여신청' 클릭 후 신청
- 참 여 : 8월 2일 오후 6시 50분까지 도착

행 정 혁 신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만든다

9월 7일까지 성남시 기동 감찰... 청탁 등 비위행위 점검

성남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기동 감찰’ 활동을 벌인다.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5개 반 20명의 감찰반원을 투입해 시 본청과 3개 구청, 각 사업소, 48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무기강, 공무원 윤리강령 이행실태, 민원처리, 에너지 절약, 장마철 재난대책 실행, 보안 실태 등을 노출·비노출 형태로 감찰한다.

특히 직무관련 금품수수, 청탁 등 비위행위와

근무시간 준수여부, 출장 및 허위 병가 등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장 확인 감찰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방치사례 등은 엄중 문책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수범 사례를 발굴, 전파해 포상한다.

시는 재작년 전국 212위에서 지난해 129위로 경증 뛰어오른 공직 청렴도를 올해 50위 이내로 끌어올리고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지난 6월 전 직원 대상 청렴정책 기반형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관실 조사1팀 031-729-2132





성남시 벤처기업 1천개 돌파



기초도시 최초... 인구 10만 명당 벤처집적도 서울의 1.8배 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5년 내 세계적 벤처 메가클러스터 전망



성남시가 기초도시로는 최초로 벤처기업 1천개 시대를 열었다.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성남시는 7월 현재 1,017개의 벤처기업이 인증을 받아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광역시(854개), 강원(434개), 충북(667개), 전북(610개)보다도 많은 벤처기업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벤처기업 수도 성남시는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1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

울의 경우 10만 명당 56개사, 부산 54개사, 광주 45개사의 벤처기업이 분포한 반면, 성남시는 2배를 넘나드는 101개사의 벤처기업이 등지를 틀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분당 문화산업진흥지구, 위례 메디바이오지구, 동원동, 대장동 산업단지의 신설, 확대 추세로 볼 때 성남의 벤처기업 수는 5년 내 1,500개까지 늘어나 세계적인 벤처 메가클러스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1천억 이상 초우량 벤처클럽도 21개사

벤처기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남시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NHN, 휴맥스, 네오위즈게임즈, 솔브레인 등 매출 1천억 이상의 초우량 벤처클럽도 21개사에 달하며, 이들 기업이 올리는 연간매출만 5조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정보통신, 반도체, 콘텐츠, 의료바이오 등의 분야가 집적이 활발하다는 것도 성장 지속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의 벤처기업 수는 2007년

536개사, 2009년 693개이던 것이 민선5기 들어 300개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초도시 규모로는 최대인 200억원을 산업진흥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함께 모바일게임센터 유치, 벤처펀드 신규조성, 광역교통망 개선 등이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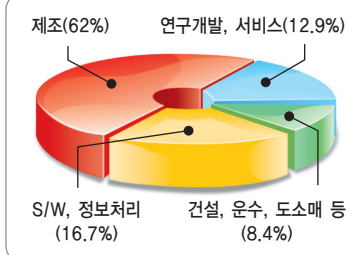
성남시장은 1천 번째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모바일게임 개발사 '엔필'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성남시

가 이번 기초도시 최초의 벤처기업 1천개 돌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벤처중심도시'로 인식되게 됐다"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의 능동적 개편, 산업환경 개선사업, 혁신적 기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의 1천 번째 벤처기업(주)엔필은 1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빅히트작 '버저' 게임을 개발한 모바일게임 회사로, 한게임을 운

영하는 NHN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계기로 최근 성남시로 이전했다.

■ 성남시 벤처기업 구성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031-729-2652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47



2012 런던올림픽

100만 성남시민이 응원합니다!



금빛 사냥 유력...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출전

여자 펜싱팀 남현희·오하나
5회 연속 올림픽 출전 남자하키팀



펜싱 남현희



펜싱 오하나



남자하키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12 런던올림픽'에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펜싱팀과 하키팀 총14명이 출전, 금빛 사냥에 나섰다.

펜싱팀은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남현희(개인·단체전), 오하나(단체전) 등 2명이, 하키팀(단체전)은 신석교 감독을 비롯한 선수 11명(이명호, 이승일, 조석훈, 남현우, 현혜성, 이남용, 홍은성, 윤성훈, 유호식, 김영진, 오대근) 등 12명이 출전

한다. 이번 런던올림픽 출전 한국선수단 245명 가운데 109명(44.5%)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육상·수영·하키·펜싱 등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다.

특히, 성남시청은 남자하키 대표팀의 절반이 넘는 11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록을 갖게 됐으며,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으는 여자 펜싱팀의 남현희, 오하나 선수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한국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직장운동부를 꾸준히 육성해 온 성남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성남시장은 7월 16일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성남시를 빛낼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힘을 보태자.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1



‘취업 성공 행복 파트너’ 성남시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는 신념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중 1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받게 됐다(사전). 앞으로 나머지 근로자도 직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는 SK C&C와 전문계고 졸업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 이들 취업을 지원 사

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SK C&C에 채용서류를 접수해 선발된 인원은 9~12월 IT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거쳐, 내년 1~6월 수습기간 후 7월부터 SK C&C 자회사인 TELSK의 정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또 5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7월 19일 열었고 상시 성남일자리센터로 운영하는 등을 하반기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일자리 해결사, 성남일자리센터로 오세요

일 자리를 구할 때도 직원을 찾을 때도 성남일자리센터로 오시면 무료로 신속히 알선해 드립니다.

■ 일자리 알선 및 채용지원

- 일자리 알선 (청년, 장년층, 노인, 여성, 장애인)
- 사업체(기업)의 구인(면접·채용) 지원
-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태도 등 취업상담
- 매달 19일, 구인·구직자 만남의날(시청)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도)

■ 취업지원(교육) 하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성남시거주자)	모집기간(운영기간)	내용
청년	30세 미만 (군필자는 32세 미만)	8.13~8.22(8.27~10.5)	- 모의면접, 이력서작성법 - 취업매칭 집중서비스 - 참여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10.15~10.24(10.29~12.7)	
재취업	30~55세 미만	8.6~8.16 (8.20~9.28)	- 재취업을 위한 심리적 준비 및 동기부여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모의면접
		10.8~10.17(10.22~11.30)	
고령층	55세 이상	9.3~9.13(9.18~9.20)	- 취업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
여성	54세 이하 여성	9.17~10.4(10.8~10.10)	- 경력단절 여성 취업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
특성학교	전문계고 3학년	학교로 안내(9.11~9.13)	- 올바른 직업관 형성, 직무분석, 이력서작성법

※ 모집인원은 기수별 15명

성남일자리센터 031-729-4411~7(성남시청 2층)

취업! 도와드려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직원 모집

모집인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이며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을 실시한다. 입사지원서는 홈페이지(www.scsn.or.kr) 홍보센터/자료실 참조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방문이나 이메일(sooan88@scsn.or.kr)로 수시 접수한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0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

성남시는 SK플래닛과 공동협약을 통해 IT 전문교육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2013년 2월 7일 21주간 비전문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을 교육한다. 내용은 IT개론, C 및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프로그래밍, 모바일디자인 등이다.

만19세 이상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재산평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고졸 이상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등이 교육 신청할 수 있다. 7월 16일~8월 27일 시청 기업지원과나 각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031-729-2653

직업상담 프로그램 ‘커리어 디딤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직업을 찾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위해 커리어 디딤돌을 놓아준다. 8월 프로그램은 8월 27~31일 5일간 총 20시간 성격유형검사,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과 에티켓, 이력서·자기소개서·모의면접, 걸림돌 극복 및 비전 세우기 등을 교육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무료로 진행되니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031-899-9183

www.womenpro.or.kr

제2회 성남시민기업 창업경진대회 이후 동네쟁이들 등 5개 팀... 6개월 간 창업보육

성남시민기업 창업 경진대회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해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 운영하고 싶은 사람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6월 중순 제2회 성남시민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5개 팀이 선정됐다.



‘동네쟁이들’은 문화예술과 디자인을 매개로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네트워킹 확대를 촉진해 지역공동체성을 회복, 지역 내 문화자원을 발굴 연계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지역기반 정보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 앱 사업’은 스마트폰의 위치기반과 접근성

기능을 활용해 장애우와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지자체 지원과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음과 배움’은 성남시 정서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부적응 해소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왕따, 게임중독 등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성남시 중고생활용품 통합 유통시스템 구축’은 중고생활용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통합 유통망을 통한 구축상설매장, 벼룩시장을 통합하는 온라인상터와 대형 중고유통센터를 개장해 유통을 활성화한다.

마침 사회적기업센터를 찾아가는 때는 ‘동네 빨래터’의 김설화 대표와 직원들이 인큐베이팅 중이었다. “초보자들의 육아 어려움을 털어 놓는 곳으로 산후우울증이 없는 초보주부들의 아이키우기 정보나눔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이들 기업은 6월 25일부터 6개월 과정의 아카데미와 창업컨설팅을 거쳐 12월 말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031-729-4958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장애인의 권리 지키기와 안정된 일자리 지원



영화 '도가니' 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이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한마음복지관 1층에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의 '성남시장재인권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장재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권리증진팀과 일자리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팀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는 일은 물론 일자리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사업장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수급자 장모 씨(40·야탑동)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인원감축의 첫 번째 대상자는 항상 우리 장애인이다. 앞으로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증진팀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담, 실질적 차별구제, 소송과 법률자문은 물론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500만 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박윤근 담당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을 존중한다’는 마

음을 기본 바탕으로 성남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주위에 차별, 방치되는 장애인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시장재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8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주민센터 안에 보건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목요일 오전 동 주민센터 순회

성남시 중원구보건소는 각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작은 보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는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돼 매주 목요일 오전(9~12시) 중원구 내 1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체성분 등을 측정해 주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과 금연 상담 등을 한다. 지난 6월 30일까지 이 서비스를 받은 지역주민은 654명(2,134건 검사)이다.



이 가운데 33명(5%)은 지금까지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만성질환 소견을 보

여 보건소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연계했다.

또 금연 상담을 받은 100명(15%)의 지역주민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받고 있다. 비만 상담을 받은 150명(23%)의 주민은 개인별 운동량과 운동방법, 저열량 식사법 등을 지켜 체중 감량을 실천하고 있다.

황모(82·여·은행1동) 어르신은 “당뇨 치료제를 복용중이라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의료진들이 집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찾아와 진료해줬다”며 만족해했다.

중원구보건소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운영 성과에 힘입어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운영시간 연장과 방문주기 단축 등 운영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동에 보건소가 찾아오는 날짜가 궁금하다면 보건소에 알아보자.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13

'나라사랑, 작지만 큰 실천' 수내3동, 주민에게 태극기 나눠주기

수내3동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반상회 기금으로 태극기를 구입, 주민에게 나눠 주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획했다. 태극기를 받은 세대는 수내3동 제2통 1반 주민 40세대다. 태극기를 나눠줄 때 계양의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반드시 계양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수내3동 권동희(53·여·제2통장) 씨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작지만 큰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국가계양일인 제헌절이 얼마 남았나 손으로 섬하기도 했다.

수내3동 주민센터 신서호 동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태극기 구입, 나라사랑 홍보물 제작 등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내3동 주민센터 031-729-7662



청 | 찬 | 해 | 요

“우리 고장 성남이 고마워요”

분당구, 형편 어려운 성적 우수 고교생에 장학금 지급

홀어머니와 사는 김모(고 3·구미동) 군. 평소 좋은 성적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수업료를 낼 때면 얼굴빛이 어둡다. 김 군처럼 성적은 우수하지만 집안형편이 어려운 시 관내 고등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다.

분당구는 저소득층 자녀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2~3학년을 선발, 1년간 수업료 전액(약 13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분당구 환경관리원 동호회를 시작으로 7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원적

정사(사진), 금곡동 보바스기념병원, 시흥동 선사교회,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등이 참여해 8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분당구 관계자는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도 수여해 수혜학생이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성남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항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협 서현지점 등 많은 기관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장학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031-729-7021



성남시장학회

2012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해요

- **선발계획** : 68명 2억2천만원
재단장학생 34명, 성남장학생 28명, 자립장학생 3명, 특기장학생 3명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해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받고 있지 않은 학생(분야별 자격요건은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접수** : 8월 20~24일 장학회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증명서류 제출** : 8월 20~24일 장학회사무국 제출
- **선발자 발표예정** : 9월 20일(목)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교과서, 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재)성남시장학회 031-729-4811~2, 성남시청 6층



2012 성남 국제 청소년 윈드페스티벌

2012.8.8 성남아트센터(콘서트홀) 오후 7시30분 / 2012.8.9 분당중앙공원 오후 7시30분

주최/주관_코리아주니어빅밴드 후원_성남시, 성남문화재단, HDC 영상뮤직, 유엔젤보이스, 오지스, 한미은행



클릭! 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www.snyc.net

• **역사문화탐방 ‘떴다! 남한산성 탐험대’** 남한산성의 다양한 역사와 생태 체험으로 지역의 대표유산인 남한산성을 좀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다. 전통무예 24기와 함께 무예 예절·수련, 생태체험, 올바른 인사법·바른말 쓰기 등 전통예절교육이 8월 9~10일(4차), 9월 1일, 8일(5차) 초등 3~6



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1만5천원이며, 7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031-740-5263

• **청소년 영상기획 공모전 및 슬로건 공모전** 7월 11일~8월 2일 학교 폭력 문제를 표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영상기획 공모전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시나리오를, 슬로건 공모전은 슬로건과 간단한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4~19세 청소년은 개인과 단체로 홈페이지(www.chamtv.com)에서 소정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방문, 우편 제출하면 된다.

031-740-5280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www.pgoyouth.or.kr



• **나래누리 주말체험 ‘맛있는 복숭아 수확 체험’** 동양의 선약으로 전해지는 복숭아! 참가자가 직접 수확해 복숭아 잼 만들기과 화전 만들기, 전문 생태강사와 함께하는 각종 식충·덩굴식물 숲체

험 등을 8월 25일(토) 3~6학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 8월 8일(수)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pgoyouth@snyouth.kr)로 선착순 접수한다.

070-4012-6688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www.sn-atti7979.or.kr

• **청소년 드림캠프**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는 1박2일 진로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8월 18~19일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7월 23일부터 이메일(sn-atti7979@snyouth.kr) 접수한다.

070-7487-2804

•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내가 인조라면’**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에서 연극놀이로 만나는 쉽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문화체험 후 문화의집 남한산성봉사단과 함께 천연염색 체험, 나무 곤충 만들기 등도 진행한다. 수정·중원구 초등 3~6학년은 7월 26일(목)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070-7487-2803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sn1388.or.kr

• **취약계층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만 15~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계적·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상은 가출, 요보호, 보호관찰, 시설퇴소, 학교부적응 등 사회심리적 위기·취약계층으로 사회진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다. 1단계 집단상담 교육, 2단계 직업 등 체험, 3단계 사회진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화나 이메일(snc1388@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031-750-4678

■ 소통행정 ■

‘무공해 정’ 나누면서 지역 문제도 해결

산성동 주민센터 옥상 텃밭 ‘산성마루’... 주민과의 현장 소통의 장

“상추쌈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한쪽 차선 흠잡지제 주차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지난 7월 3일 오후 6시 30분 산성동 주민센터 옥상, 그동안 작은 텃밭 사이로 넝쿨 다리를 놓은 호박꽃을 이웃삼아 정성껏 가꾼 상추와 오이, 쑥갓, 고추, 쌈 채소가 가득한 시골 밥상처럼, 주민들의 대화도 화기에 애하고 풍성하다.

산성동은 형식과 절차 위주의 딱딱한 행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치된 옥상 텃밭을 조성했다. 동장과 직원들이 재배한 채소를 지역 주민들과 같이 나눠 먹으며 일상에서부터 동정, 시정까지 다양한 의견

을 나누는 특색 있는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 6월 7일 주민자치위원회, 11일 통장협의회와 소통한 결과, 동네 어려운 이웃 40세대 49명에게 한시적 ‘우선돌봄 차상위제도’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한 민원 대처와 더불어, 7월 3일에는 산성동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좁은 도로사정과 상거래의 편익을 고려해 흠수일에는 왼쪽 차선, 짝수일에는 오른쪽 차선에만 주차를 허용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한쪽 차선 흠잡지제 주차’ 참여에 관한 주민공감

고, 잘 운영되면 교통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에 올라오면 농장 같아요.” 김정섭(50)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연스레 동장님과 직원들 얼굴도 익히고 좋은 일, 나쁜 일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다 보니 서로 정도 들고 단결도 잘돼 사람 사는 고향 냄새가 난다”며 좀 더 활성화돼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위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연신 챙기는 봉사새내기 김영숙(56) 새마을부녀회장은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가족같이 친해져서 즐겁고 행복해요. 매달 2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도시락 봉사도 할 수 있게 돼 기뻐요!”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장님의 배려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덧붙였다.



산성동장은 “산성마루 옥상 텃밭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지역 이해관계의 문제를 완화하고 설득력을 높여 공감대를 형성,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참여의 폭을 넓혀 권리를 충족시키는 ‘참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곳 산성마루가 앞으로도 텃밭 채소의 건강함만큼 주민 중심의 소박하고 정감어린 ‘무공해 현장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한편 산성동은 7월부터 주민센터 1층 로비에 미끄럼틀과 볼풀장, 시소 등을 설치한 어린이놀이방 ‘아이 꿈터’를 개방, 아이와 함께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산성동 주민센터 031-729-5802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우리마을 건강 지킴이 ‘성남의료생협’

우리마을 건강은 우리한의원에서 지킨다



‘어울려 화합해야 사람에게 이롭다.’ 어느 스님이 쓰셨다는 문구가 막 들어선 한의원 벽에 쓰여 있다.

“생협은 건강함과 공공성이 우선이잖아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해 개원한 곳이지요. 의료를 매개로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지화 성남의료생협 이사의 말이다.

이곳은 수정구 신흥3동 메드위즈빌딩 9층에 위치한 성남의료생협 ‘우리한의원’으로 성남의 시민사회 단체와 협동조합이 힘을 모아 성남시민들의 건강, 의료와 관련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인 이곳의 조합원 수는 올 7월 현재 1,600세대, 출자금은 2억원이 넘었으며 1만원만 내

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먹을거리 생협은 많으나 의료분야는 없는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 생겼다고 한다.

매개한 뜸 냄새와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한의원. 진료중인 김세화 한의사(사진)가 말한다. “우리 한의원은 좋은 약재인 옴니허브(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약제)만을 100% 쓰고 있어요. 환자와의 소통을 중시해 진료 때 권위적이지 않게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건강을 위한 약초기행, 산약회, 댄스모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의 탈모 때문에 복정동에서 왔다는 이은미(37) 씨는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아기를 데려와도 부담이 없어요. 한방차 등이 준비돼 있어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요.”

한쪽에 마련된 조그만 온탕고가 보인다. 눈을 돌리자 송고한 의식을 치룬 듯 온 몸을 비우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약탕기의 거름망도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꾸려 가야하는 살림살이

가 만만치 않음을 어렵게 내비치면서 장 이사는 “건강은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유롭지 못한 분은 그렇지 못하지요. 충분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충과 예측까지 가능한 개인 주치의 제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건복지부 인정 의료생협으로 이곳이 성남에서 유일하다고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기도 한 성남의료생협은 우리한의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중증장애인단체, 노숙인쉼터 등을 돌며 무료 건강강좌, 무료 진료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두운 곳을 살피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니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성남의료생협 사무국 031-742-9753, 우리한의원 031-755-9752

www.snmedcoop.com |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우리 모두 기억해요! 6.25 참전유공자 구미동 심재선 · 정자2동 이용희 어르신

“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



6.25전쟁 62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생의 참상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구미동에 사는 무공수훈회 심재선(98·육군 중령) 씨는 1955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전에도 3개의 훈장을 더 받았지만 겸손해 하는 어르신을 어렵게 만나 뵈었다.

충북음성이 고향인 심재선 씨는 작전명령을 받고 출전 중이던 전우들과 “고향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절을 올리자” 하고 산등성이에서 무릎 꿇고 절을 올린 뒤 포탄이 쏟아지는 작전지로 돌진해갔던 화천 금성천 전투작전 성공담을 들려 주었다.



국민영화제작소 소장을 역임했던 심재선 씨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지금도 학교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굳이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하며 습관처럼 고향의 산과 들 마을을 스케치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스케치해서 모아 놓는다는 심재선 어르신은 다시는 비극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자2동에 사는 성남 수정 재향경우회 참전전우회 이용희(89) 씨는 안동, 해인사를 거쳐 지리산 등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지금도 그날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개성이 고향인 이용희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부모님과 형님이 미처 피난을 나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웃에 사는 김진수(70) 씨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국가 유공자를 발굴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산 증인이 되고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칭찬했다.

굳은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생활하는 어르신은 다리도 불편하지만 혈압 약을 받으러 1개월에 한 번씩 본시가지에 간다며, 이제 우리 젊은 이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체험장 스케치 반딧불이 보셨어요?

지난 6월 10일 일요일 오후 9시. 캄캄한 국궁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와 반딧불이 전문가 그리고 환경정책과 직원들이다. 다음날 있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체험’ 예행연습을 하는 중이다.

시민들에게 보여 줄 반딧불이 관련 영상자료를 점검하고 난 뒤 반딧불이를 체험할 장소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걸어 실제처럼 동선을 확인하고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나서야 준비를 마쳤다.



물과 공기가 모두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환경지표종이다. 성남 시청 환경정책과에서는 2009년 7월부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

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밤 10시, 체험을 신청한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각자 가져 온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가족들은 먼저 반딧불이의 생태와 민요, 전설을 들었다.

“아~!” 반딧불이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첫눈에 반한 숙경남자를 잊지 못해 상사병이 나 죽은 뒤 반딧불이가 됐다는 마을 청년 순봉이의 이야기가 안타깝기도 하다.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난 시민들은 숙경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날아다니는 순봉이를 만나러 길을 나섰다.

소쩍새 소리,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길에서 어느 순간 탄성이 터졌다. 반딧불이가 나타났다. 약 0.5초 동안 짧게 반짝이는 파파리반딧불이의 빛이 탐사에 나선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신호를 보내 줄 암컷을 찾아 강한 빛을 반짝이는 파파리반딧불이 수컷이 저쪽 물가에서 점점 가까이 날아들었다. 손으로 톡 치면 잡힐 것 같다. 이날은 쉽게 볼 수 없는 암컷 반딧불이를 채집해 관찰할 수 있었다. 파파

리반딧불이의 암컷은 속날개가 퇴화돼 날지 못하고 불빛도 수컷보다 약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때론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된 반딧불이 탐사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했던 황정현(불곡초 6) 어린이는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성남시의 자연환경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8월 말, 9월 초에는 늦반딧불이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 현재 우리시에는 영장산 큰굴 일원과 금토동 지역, 대장동 모두마니 지역, 하산운동의 옛 쓰레기 매립장 주변 등 총 42곳에서 애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우리시에서 반딧불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재밋는 수업도 듣고 방학숙제도 하고 '일석이조' 도서관 여름방학특강

관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여름방학특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부담이다.

■ 수정도서관 8월 7~28일 <http://sj.snlib.net>

강좌명	대 상	인 원	교육일(8월)
엄마가 읽어주는 행복한 영어동화	성인	25명	7일/14일/21일/28일 (매주 화 10:00~12:00)
이야기가 있는 요리	6~7세	15명	9일/10일/16일/17일 (목·금 13:30~15:00)
	초등1~2	15명	9일/10일/16일/17일 (목·금 15:00~16:30)
초등 과학교과서 선행학습	초등3	15명	7일/9일/14일/16일 (화·목 10:00~11:30)
	초등4	15명	7일/9일/14일/16일 (화·목 11:30~13:00)
우리겨레 문화유산탐험	초등4~6	15명	8일/9일/10일 (수~금 10:00~12:00)

접수 : 7월 25일(수) 오전 10시~ 7월 28일(토) 선착순 인터넷 접수

오는 8월 9일에는 손 안의 PC(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10일에는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법 배우기 등 '스마트 아카데미'를 시민을 대상으로 연다. 7월 26일(목)부터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정보관리파트 031-743-9600

■ 중원도서관 8월 6~20일 <http://jw.snlib.net>

강좌명	대 상	인 원	교육일(8월)
진로탐색과 좋은 공부습관	중학생 1~2	10명	7일/9일/14일/16일 (화·목 10:00~12:00)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생각그물	초등4~6	20명	6일/11일/13일/18일 (월·토 10:00~12:00)
방학숙제 완성 '우드아트랑 클레이'	초등3~6	20명	7일/9일/14일/16일 (화·목 14:00~16:00)
창의 & 집중 향상 '나는야 마술사'	초등1~3	20명	7일/9일/14일/16일 (화·목 10:00~12:00)
영어동화 속 주인공 되기	초등1~3	20명	6일/9일/13일/16일 (월·목 10:00~12:00)
즐거워 두뇌개발 체스 & 보드게임	6~7세	15명	6일/8일/13일/20일 (월·수 15:00~17:00)

접수 : 7월 26일(목) 오전 9시~ 7월 30일(월) 선착순 인터넷 접수

하반기 컴퓨터교육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기 평일반은 9월 3일~20일(월~목) '참 쉬운 엑셀 2007', '처음 만나는 스위시(기초)', 직장인반은 9월 8일~10월 27일(토) '포토샵', '도전! ITQ 한글자격증 준비', 실버세대반은 9월 3일~10월 25일(월~목) '윈도우7과 인터넷 활용' 강좌를 열며, 수강생은 8월 22~24일 선착순 인터넷 접수한다. 정보관리파트 031-752-3916

■ 신흥1동 작은도서관 7월 25~8월 25일

행사명	대상(인원)	일시
여름특선영화	어린이	7.25 ~ 8.22 (수 14:00~)
시원한 팔방수 만들기	초등1~6 (10명)	7.26 (목 15:00~16:30)
나만의 이야기로 책 만들기	초등1~2 (10명)	8.9 (수 15:00~16:30)
어린이 영어연극 'Chubby Story'	가족과 함께	8.25 (토 11:00~)

접수 : 선착순 방문 및 전화 접수(031-721-9561)



선조의 손맵시 배워요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공예체험

아이들에게는 즐겁지만 어른들에게는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길 원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에 가 보는 건 어떨까? 수천 년을 우리의 삶과 함께한 전통공예만들기를 체험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공예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중추적 역할과 우리의 문화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1층 제1,2전시관에서는 전통공예 생활용품과 가구류를 전시 판매하고, 2층 제3전시관에서는 경진대회 수상작 등 우수공예품을 전시하며, 제4전시관에서는 2012년 공예체험교실을 6월 30일~12월 31일 종이공예반, 목칠공예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8월에는 김명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이사) 선생이 진행하는 수요일 종이공예반(오후 2시)에서 한지부채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천연 방향제 만들기를 수업하고, 토요일 목칠공예(나전칠기)반(오전 10시)에서는 수저만들기, 목걸이 만들기를 격주로 수업한다. 목칠공예를 지도하는 방극완 선생은 2009년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 받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능나눔으로 되돌려 주고 싶어 토요일 수업을 맡았다고 한다.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열린공예체험터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체험과목을 더할 예정이다. 수시로 전화(031-735-7734) 신청할 수 있고, 1회 수업당 재료비 5천원은 본인부담이다.

아이들은 방학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방학이 없다. 이 기회에 전통공예 체험도 하고 도시와 인접한 자연도 접할 수 있는 남한산성으로 가보자. 아이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어른들은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효정 기자 kottami@naver.com



문화데이트

밖으로 나가보면 여름방학 전시, 공예체험, 그리고 진로 도와줄 청소년 집단상담 등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미래 희망을 찾다 여름방학 청소년 집단상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진로의사결정과 또래관계, 사회성향상,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생활태도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성장하도록 8월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프로그램명	대 상	일 시	내 용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코칭	중학교 2~3	8.6/8.9/8.13, 8.16/8.20/8.23 월·목 10:00~12:00	- 자신의 직업가치관 이해하기 - 미래의 직업 탐색하기 -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기
솔리언또래 상담자훈련	중·고등 학생	8.7/8.10/8.14, 8.17/8.21/8.24 화·금 10:00~12:00	- 친한 친구되기 - 대화하는 친구되기 - 도움주는 친구되기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학교 2~3	8.6/8.9/8.13, 8.16/8.20/8.23 월·목 14:00~16:00	- 자신에게 숨어있는 스트레스 찾아내기 - 비합리적 신념에서 합리적인 신념으로의 여행하기 -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기
사회성향상 미술치료	초등 5~6	8.7/8.10/8.14, 8.17/8.21/8.24 화·금 14:00~16:00	- 자신의 감정 인식하기 표현하기 -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살펴보고 대안책 찾아가기
심리치료 워크숍	중·고등 학생	8.11(실시) 8.18(해석) 10:00~12:00	- 성격유형검사 (MBTI, MMTIC) - 진로탐색검사 (HOLLAND) - 문장완성검사(SCT)

접수 : 7월 30일(수) ~ 8월 2일(목) 선착순 전화접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031-756-1388, 031-750-4692, www.sn1388.or.kr

심희주 기자 heejoo719@daum.net



‘나도 예술가’

성남아트센터 공연과 미술관 관람

■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V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를 모토로 올해 4회째 마에스트라 장한나와 함께하는 완벽한 클래식 세상이 8월 18일, 25일, 9월 1일 ‘Music & Story’를 주제로 선보인다. 장한나의 스승, 미샤 마이스키 첼로 협연도 볼 수 있으며, 장한나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공연 전 해설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의 클래식에 대한 친근감이 높였다.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www.snart.or.kr

날 짜	시 간	행 사	장 소	비 고
8.11(토)	15:00	“Absolute Youth Day!” 장한나와 대화의 시간	성남아트센터	무료/ 홈페이지 통해 참가신청
8.18(토)	16:00 ~ 16:30	장한나의 해설과 함께하는 “Pre-Concert Talk”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료/ 선착순 입장
	17:00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V - Concert 1 • 개성을 위한 몸부림 - 인형의 혼, 그리고 작곡가의 투쟁		R석 5만원 S석 3만원 합창석 1만원
8.25(토)	16:00 ~ 16:30	장한나의 해설과 함께하는 “Pre-Concert Talk”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료/ 선착순 입장
	17:00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V - Concert 2 • 이야기 주머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돈 키호테와 한 영웅(첼로 : 미샤 마이스키)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9.1(토)	18:00 ~ 18:30	장한나의 해설과 함께하는 “Pre-Concert Talk”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무료
	19:00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V - Concert 3 • 친구의 그림을 음악으로 불멸하게 한 작곡가와 삶의 풍경들을 음악으로 그린 작곡가		무료

■ 독일 라이프치히 화파 들여다보기, <German Now>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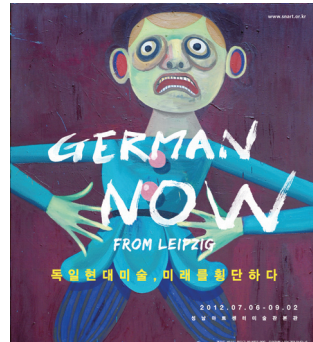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술계의 신대세, 독일 라이프치히 화파를 집중 조명하는 독일현대미술전 <German Now>전이 7월 6일~9월 2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

라이프치히 화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의 통제를 받는 동독에서 외국의 다양한 현대미술의 유입이 차단된 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의 전통을 이어갔다.

<German Now>전은 라이프치히 화파의 태동에서부터 전개까지 구동독 현대 미술의 전체적인 면모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독일 컨템포러리 아트 개론서와 같은 컬렉션으로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설치작품까지 60여 점의 작품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다.

관람료는 성인 7천원, 초·중·고 5천원, 36개월~6세 3천원. 월요일 휴관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www.snart.or.kr



성남시의회 방청·청원·진정 안내

■ 방청 안내

-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방청을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729-2521~5

■ 청원 안내

-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729-2531~7

■ 진정 안내

-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729-2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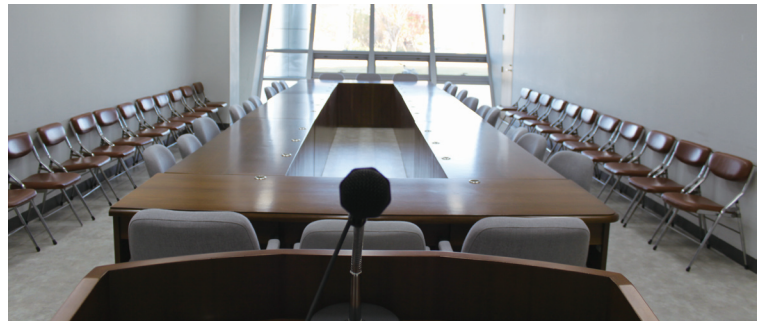


성남시의회 청사 개방 안내

성남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의회 청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시설

- 1층 회의실(24석, 회의실 형태)



- 1층 세미나실(26석, 교실 형태)



- 1층 로비(330㎡, 전시 공간 등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접속 → 참여마당 → 시설사용 신청 (실명인증 후 해당 날짜를 선택, 행사내용 등을 기재해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전에 해당 날짜에 사용 가능한지 전화 확인 후 신청 (전화 : 031-729-2524)

★ 별처럼 총명한 어린이들, 시의회를 찾다 ★

삼평어린이집 원생 60여 명 성남시의회 방문



별처럼 총명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삼평어린이집 어린이 60여 명이 6월 19일 오후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의회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루어졌다.

본회의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의회시설을 둘러보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시의회 관계자는 “우리시 꿈나무들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나무처럼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나길 당부하면서 성남시의회는 어린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 · 중원지역 주차난 해소한다

분양지 주택 매입해 주차장 조성

성남시는 수정 · 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 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7월 2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분양지 주택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며, 4m 이상 도로와 접해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결정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 · 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정 · 중원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 · 노상주차장 등 300곳 총 1만8,234면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총 338면) 주차장을 더 건립해 주택이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

지능형 CCTV 설치로 ‘안전 성남’ 앞당긴다

행동패턴 인식해 사건 · 사고 미리감지... 신속 대응

성남시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추가 설치 예정인 212대 CCTV 가운데 67대(30%)를 지능형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는 일반 CCTV보다 설치비가 더 들지만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현행 관제와는 달리 사람의 행동패턴을 인식 · 촬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징후나 사건 ·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곧바로 성남시청 서관 8층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경보를 보내 줘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 지능형 CCTV를 오는 10월까지 주택가, 어린이 공원, 놀이터 등 67개소에 각각 1대씩 우선 설치해 각종 범죄 사전예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지역 내 총 1,645대(10월까지 설치 예정인 212대 포함)의 모든 CCTV를 활용해 지능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정책과 영상정보팀 031-729-2481

노인복지시설 공간 개방... 시민 소통문화 ‘활짝’

‘열린 문화광장 1호점’ 오픈... 1·3주 토요일 오후 5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중원문화광장’이 7월 7일 개관식을 갖고 매월 첫째 ·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상진)과 성남동 주민센터(동장 서용미)가 공동으로 주관 운영하는 ‘열린 중원문화광장’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부지의 마당과 뜰을 개방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동아리의 활동공



간, 주5일 수업에 따른 아동 ·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공간, 주부들의 아나바다장터로 활용한다.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이 문화협약으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성남시는 이번 열린 중원문화광장 1호점 시범운영 후 올 하반기에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또 수범 사례를 전파해 복지시설 외에 공공기관, 학교, 공기업까지 확대해 지역의 작은 공간이 주민들 간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연과 전시, 문화 프로그램, 아나바다장터 접수는 복지관 홈페이지(www.jwnoin.org)에서 10일 전 사전 접수해야 하며, 문화체험은 당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031-751-7450

포토 뉴스

성남 공적개발원조 3개국 지원

성남시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를 돕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본격화한다. 첫 원조대상은 시와 우호협약을 맺은 우즈베키스탄 나마간시 고려인문화회관, 중국 선양시 조선족학교, 베트남 하이퐁시 싸진미 초등학교로 정하고 7월 17일부터 각각 20~50명의 봉사단을 파견했다.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지에서 컴퓨터교실 설치, 독서문화캠프 운영, 정수시설 설치 등을 각각 진행한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2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시 관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진입하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시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면 제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착한 가격업소 64개소 추가 지정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64개 외식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추가 선정돼 성남지역 착한가격업소가 모두 73개로 늘어났다. 시는 이들 업체에 모범업소 지정서와 표창 외에 종량제봉투 지원, 금융우대, 현장출동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29-2573

성남시 장례식장 7월부터 운영

성남시는 중원구 순암로 800(갈현동 122) 일원 연면적 2,863.4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성남시장례식장을 준공해 7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장례식장은 7개 빈소와 안치실, 영결식장, 접객실 등 주요시설과 함께 녹지 ·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 한 통화면 장례부터 화장, 봉안까지 모든 장례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민에게는 빈소 · 안치실 등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시 관내 장례식장 중 유일하게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두고 있다.

- 장례식장 사용료
 - 빈소(135㎡, 1일) : 관내 21만원, 관외 42만원
 - 안치실(1일) : 관내 4만5천원, 관외 6만원
 - 영결식장(1시간) : 관내 3만원, 관외 6만원

성남시 장례식장 031-752-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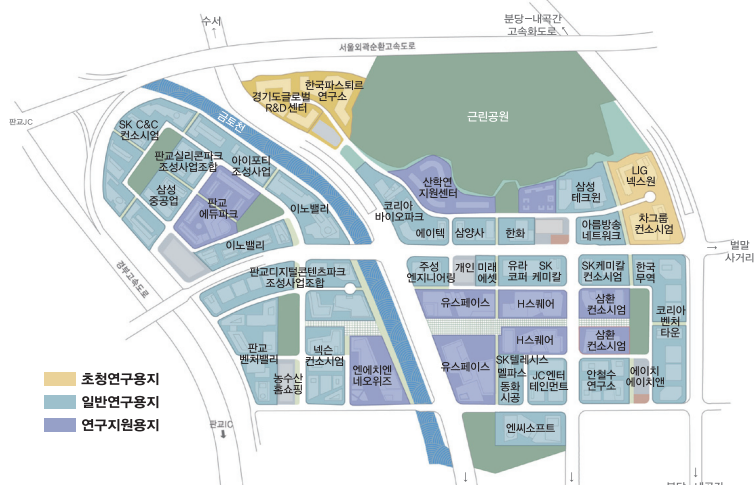


● 성남시-성남산업진흥재단 공동기획

•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분당구 삼평동 일원 66만1,915㎡(20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이제 후반 막바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안철수 연구소, 삼성테크윈, SK텔레시스, LG넥스원, 포스코CT 등이 입주했고, NHN, NC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등 국내 메이저급 기업들이 입주 준비 중에 있다.

성남시
입주를
환영합니다!

첨단기술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는 총 124개 업체가 입주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2015년까지 1천 개 이상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완성돼 가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 완료되면 3만6천여 명의 상주인력과 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4만8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신축단지로 쾌적하고,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신분당선 등 교통입지여건이 탁월하며 IT·인터넷망 등 첨단 인프라 시설과 연구 지원시설이 큰 매력으로 꼽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산업발전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써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첨단기술 메카,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준공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의 R&D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R&D센터'가 7월 11일 준공됐다.

글로벌R&D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R&D기업 유치에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과의 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0년 3월 착공, 총사업비 1,128억 원을 들여 전체 1만 2,57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6,488㎡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는 2개의 연구동과 1개의 실험동으로 구성돼 있다. 업무 공간 외에 동물실험실·특수실험실 등 연구시설과, 피트니스센터, 보육실, 공용회의실 등 업무지원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R&D센터는 이미 입주가 확정된 GE계열사 및 사토리우스 등 글로벌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더불어 이번에 유치할 바이오관련 기업 등 국내 최

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돼 판교테크노밸리를 R&D 중심 도시로 건인할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1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채용박람회 개최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취업, 구직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개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제공에도 기여한 바 있다.

세계 IT관련 첨단기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성남시의 자량, 판교테크노밸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알아두면 편해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해요

7월 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 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금융기관이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인터넷 지로로 연계해 납부하면 된다.

구청 세무과 | 수정구 031-729-5184

중원구 031-729-6183

분당구 031-729-7183

2012 중동-인도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오는 11월 5~10일 UAE 두바이와 인도 뭄바이에 파견할 업체 10개사를 모집한다. 상담품목은 두바이는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IT제품 등, 뭄바이는 의류, 전자제품, 친환경제품 등 해당지역 유망 품목이다.

시는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 교통비, 시장조사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한다. 성남 관내 제조시설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은 7월 27일까지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2

석면피해구제 신청 안내

석면으로 인해 원발성 악성종양,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질병을 가진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석면피해를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피해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시청(환경정책과)에, 유족은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특별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2, 3173

2012년도 시민 합동결혼식 개최

오는 10월 13일(토) 오전 12시 시청 온누리실 대강당에서 10쌍의 시민이 합동결혼식을 올린다.

관내 거주 시민 중 희망부부는 8월 1~31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해요

오는 8월 27일~9월 27일 각 동별 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4종(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미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031-729-2804

구청 경제교통과 | 수정구 031-729-5263

중원구 031-729-6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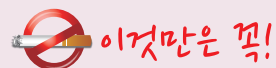
분당구 031-729-7261

제4차 창조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조경영전략과 기업혁신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 제공,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회원 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21일(화) 오전 7시 30분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포럼 자문·운영위원, 각 분야별 CEO와 관련 기관 담당자다. (주)디앤디이 최낙준 씨를 초청해 '중소기업의 산업 및 기술 융복합의 유형과 실천사례'를 강연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34



운전 중 담배꽂초 버리면 과태료가 5만원!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교통사고나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된다면?

환경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 담배꽂초 등 폐기물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

주변에 단속경찰이 없다고 안심하면 오산. 투기장면을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 접수하면 무단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성남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앱을 활용해 신고하거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투기장면 영상은 시·구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며, 1인당 매월 말 기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8

수정구 환경위생과 031-729-5322

중원구 환경위생과 031-729-6322

분당구 도시미관과 031-729-7321

‘즐겁게 배우고 새롭게 창조하다’ 知好樂 인문학 콘서트

8월 18일 중원, 25일 판교 청소년수련관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을 따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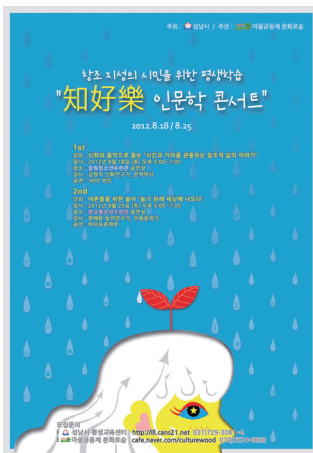
성남시는 오는 8월 18일(토)과 25일(토) 오후 5~7시 중원청소년수련관과 판교청소년수련관에 서 각각 배움을 즐기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 인문학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대중적인 학문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인문학과 성남시의 도시 강점 브랜드인 문화예술 공연 콘셉트를 접목시켜 시민에게 평생학습 분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의 주제는 ‘즐겁게 배우고, 배움으로 삶을 새롭게 창조하다’로 신화학자 김원익, 놀이연구가 편해문이 각각 유기능 펍크포크밴드 ‘사이’, ‘바닥프로젝트’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18일은 신화와 음악으로 듣다. ‘시간과 거리를 관통하는 창조적 삶의 이야기’ (강사 김원익, 공연 사이 밴드), 25일은 삶의 창조적 자유 경험 ‘어른들을 위한 놀이, 놀기 위해 세상에 나오다’ (강사 편해문, 공연 바닥프로젝트)가 선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과정은 學(학)의 영역이 아닌, 삶에서 가장 가깝게 즐길 수 있는 樂(락)이 되어 한다”며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창조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예매는 8월 13~17일 성남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l.seongnam.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知好樂 인문학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031-729-3081~3

제15회 강정일당상 후보자 접수 성남문화원, 8월 31일까지

성남문화원은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돼 2005년 문화관광부 7월의 문화인물로 추앙받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15회 강정일당상 수상 후보자를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 또는 활동한 50세 이상 여성으로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분이다. 구청장과 동장, 기관·사회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오는 9월 중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10월 중 성남문화원장 상패와 부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강정일당은 시문, 서화에 능하고 성리학과 경술(경서를 연구하는 학문)에 밝았으며, 글씨는 해서를 잘 썼다. 본관은 진주, 윤광연의 아내로 도가품의 시 40여 편이 『정일당우고』에 전하고 있다.

성남문화원 031-756-1082

평생교육 6대 영역은?... 입문과정 9월 6일 시작

성남시는 오는 9월 6일~11월 8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과 미디어홀에서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 평생교육 6대 영역 탐방을 무료로 진행한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8월 27일~9월 5일 성남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또 9월 3~7일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문해교사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 문해교육교원 양성과정’도 진행한다. 8월 20~31일 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성남시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031-729-3081~4, <http://lil.seongnam.go.kr>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저자 정회일의

‘마음에 불을...’ (7)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등등...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게 멘토링을 요청하는 분들이나, 이력서들을 보면 다양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접하다 보니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하시거나,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힘들게 자라온 정도는 정말 무난하다고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절대로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난과 병 등으로 적잖이 고생해 봐서 잘 압니다. 너무나 힘들죠. 다만 인맥과 경험 부족으로 시야가 좁아서 본인만 힘든 걸로 아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전혀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시야를 넓히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요.

본인만 힘든 줄 알고 있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상당수를 스스로에게 동정하는 데 쓰느라 문제 해결에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느라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주위의 에너지도 낭비시키는 거죠.

좋은 해결법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류의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간접경험으로나마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를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향한 동정의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나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될 겁니다. ‘나도 힘든데, 아직 남을 도울 정도가 아니라 나중...’ 식의 사고방식이 계속 삶을 힘들게 합니다.

‘개선점이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여유로우니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의 사고방식이 행복과 부를 가져다줍니다.



저자 소개: 7년 투병기간 동안 2천권 독서. 독학한 영어로 현재 강남서 영나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저개발 국가에 우물파기 등 기부사업 중. <http://cafe.daum.net/realstarteng> (‘영나한’ 검색) ‘회일샘’ 게시판에 저자의 더 많은 글이 있습니다.

건강
100세

유 희 정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한국형 '엘 시스템아' 틱움 합창단으로 오세요!



음악은 가장 높은 의미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매개체다. 결속, 조화, 상호 간의 공감 같은 가장 지고한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지역사회 전체를 결속시키고, 숭고한 감성을 표현하게 한다.

-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 Antonio Abreu)

엘 시스템아(EI Sistema)는 1975년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에 의해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어린이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범국가적 운동이 돼, 가난과 범죄와 약물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 어린이들의 손에 총 대신 악기를 쥐어 줌으로써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었고, 예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엘 시스템아가 세계 곳곳에 뿌린 씨앗 중의 하나가 LA 어린이오케스트라(YOLA: Youth Orchestra Los Angeles)다. 엘 시스템아가 키운 젊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 LA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오면서 시작돼, LA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고 있다.

2년 전 LA에서 연수할 때 YOLA에 감명받아 아이들의 연습 장면을 참관하고, 실무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 왔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즉, 한국 청소년의 자살은 만연한 불행감의 표현이

며, 작은 곳에서부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 틱움 합창단을 만들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고, 뜻을 이해해 주시는 지휘자를 만나게 됐다.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결합해 청소년 활동 인증도 받았다. 아이들을 모아 감동적인 오디션을 보고, 합창을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됐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조금씩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11월에는 아시아 ADHD 학회의 찬조공연도 하게 된다. 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들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음악을 통해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뜻을 외국에도 알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틱움 합창단은, 합창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정신건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노래의 웃을 입혀 들려 주고, 나아가 성남시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추가 단원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음악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기다린다.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

소비자 Q&A

방문판매 물품 반환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Q 미성년인 동생이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 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취소를 요구했더니 업체에서는 계약서와 화장품을 보내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서 내라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만일 착불로 보내면 물건을 받지 않고 반송하겠다고 위협합니다.

A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 방문판매자는 직접 물건을 회수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자가 직접 방문해 물건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대신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물건 반환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건강한 여름나기... 식중독을 예방하라

무더위, 장마철에 접어들어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짐에 따라 관내 보건소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정수기의 물도 노로바이러스 등이 번식할 수 있고, 집중호우로 침수 시에는 흙이나 주변환경에 존재하던 식중독균과 각종 세균·바이러스가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질 수 있다. 설사환자 발생 시 각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균성 식중독 예방요령

- 냉장고 내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냉동실은 -18℃ 이하, 냉장실은 5℃ 이하로 유지
-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싱크대, 식기건조대, 가스레인지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
- 칼, 도마, 행주 등은 매번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살균
- 침수 발생 시 식재료가 오염된 물에 닿지 않도록 보관·관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수정구 031-729-3863

중원구 031-729-3922

분당구 031-729-3982



건강교실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등 지원

수정구보건소는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환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아토피천식안심학교장 추천자,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는 분기별로 보습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증진팀 031-729-3853

어르신 눈 건강센터

수정구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성남시청 9층에서 운영한다. 노인성 안질환 예방교육을 통한 조기검진, 저시력 재활훈련, 확대경대여 등으로 시력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실명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은 관내 안과 병원과 연계해 안과 검진을 안내하고 검진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눈건강센터 070-7730-9930

국가 암 조기검진 무료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2012년 국가암조기검진 안내문 받은 분)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위암과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며, 지정 병원에 전화예약 후 검진받으면 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된 자(5대 암)와 의료급여 암환자, 폐암환자, 소아암 환자는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 건강증진팀 | 수정구 031-729-3854

중원구 031-729-3914

분당구 031-729-3973

'틱움 어린이합창단' 단원 모집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7월 23일~8월 10일 모집한다. 신청서(홈페이지 www.withchil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합창단원은 전문 지휘자의 지도 하에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과,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9445



아름다운 나의 서재

‘표단영직(表端影直), 겹이 단정하면 그림자도 곧다’ 독서운동가 조창섭 선생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해당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는 학자, 조창섭(72·분당구 아탑동·사진) 선생의 첫 이미지는 올곧고 청렴한 학자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선생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독어교육학을 강의했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평생 교육계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교육자, 조창섭 선생. 선생은 현직을 떠난 지금 독서운동 전개를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쓴다.

“독서능력을 개발·향상시키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독서를 통해 교양과 정서적·문화적 함양은 물론 원숙한 인간관계도 형성된다”며 지식 정보가 자산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

운동을 전개해 평등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현실과 실천을 중시했던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12대손이며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부모님을 존경한다.

‘한국 독서 교육 실천 연합회’ 회장인 그는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방과후 교실 수업을 통해 학부모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일주일에 1회, 2시간씩 30시간을 이수하면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독서 방법 개선과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독서운동 중심에 있도록 하는 그는 독서를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시적인 구호가 아닌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며 그것을 지키려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는 독서와 관련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978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법인 『독서법』, 『독서능력 개발법』, 『독일 현대문학의 이해』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그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재능나눔 봉사단’ 단장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소독 등 용역부문과, 건축·전기·승강기·조경 등 공사 부문, 프로그램 개발·자문 등 공동체 활성화 부문 등 3개 부문 7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등 각종 유지와 관리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기여한다.

봉사단은 “마을공동체에 맞는 구성단체며 단체가 목표를 실천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다”는 그는 “쾌적한 생활환경, 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 주민들의 문화예술 충족”이 되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표단영직(表端影直), 겹이 단정하면 그림자도 곧다. 겹이 바르고 단정해 그림자까지 곧을 것 같은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하는, 영락없는 올곧고 청렴한 학자다.

조민자 기자 dudlfdk@hanmail.net

문
화
칼
럼

굿바이! 김수영

나만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김수영의 시는 언제나 현재

사람 숲을 이루는 서현역 광장에서 문득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순간 ‘나’와 ‘그’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와 단순 교환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



철학자 강신주 씨가 최근 펴낸 ‘우리 인문학의 자궁심’인 『김수영을 위하여』

다. 그러자 다리가 풀리고 현기증이 납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나만의, 나만의 삶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삶을 들여다보고 대충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 마치 내 삶인 양 살아왔던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 질 들뢰즈는 이런 삶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나를 경멸했을 겁니다. 그는 ‘나’를 상품과는 달리 교환 불가능한 단독성의 개념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한 개체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외적인 것과 깨어 있지 못하는 자신과의 싸움!

196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수영 시인은 평생 그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싸움은 그에게 차라리 숙명이었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중략/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부분

인용한 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시는 나만의 삶을 방해하는 내외적인 것과의 투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자유의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에 있을 겁니다.

이런 자유에의 의지를 일관되게

노래했던 김수영 시인은 철학자 강신주 씨 표현대로 ‘우리 인문학의 자궁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 보아도 그의 시는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될 정도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시를 애타게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굿바이, 김수영? 하이! 김수영?

이건행 / 보이차 전문점 ‘티마켓’ 대표. 한양대 국문과를 나와 일간지와 시사주간지 등에서 미술·사진·증권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임권택 감독의 〈창〉의 원작이 된 장편소설 〈세상 끝에 선 여자〉가 있다.

story 1

고3 수험생 딸에게

이영복 | 분당구 서현동

늦은 밤 특유의 신속한 손동작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고 후다닥 뛰어 들어오는 딸아이. “우와 대박! 나 오늘 엄마 말 듣고 우산 가져가길 정말 잘했어. 지금 비 엄청 와!!” 하며 호들갑을 떠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지고 식탁에 자리 잡은 딸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사실, 아침에 우산 챙겨가면서 엄청 민망했거든. 다른 애들은 아무도 우산 안 가져가는데 나만 들고 가는 거 정말 뻘쭙해.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내리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날 엄청 부러워하고 좋았어.”

여기까지 듣고 나니 괜스레 가슴 한편이 서늘해진다. 사실 딸아이의 말은 속마음 하나를 숨겨둔 채였다. 다른 친구들이 우산을 챙겨가지 않는 것은 비가 오리라는 예보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소한 걱정들은 집에 있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늦은 밤 학교를 나설 시간이면 학교 앞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이 그 정답이었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학교까지 걸어서 겨우 15분 거리인데 그 정도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자립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나름 강하게 키우려 선을 그어온 결과가 딸아이에게 우산 하나의 행복을 이렇게 과장돼 느끼게 한 것이다. 이제 와서 우리 부부의 이런 원칙을 결코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한 환경이 그러니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서운한 일도 많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지난 봄 우리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았을 때 딸아이가 준비한 선물은 특별한 것이었다. 스케치북 앞뒤 면이 짝 차게 딸의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축하 메시지를 써넣었다. 그 나이의 아이들에 맞는 감쪽하고 앙증맞은 글씨체와 말투, 직접 그리거나 오려 붙인 귀여운 그림과 사진들,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에 묻혀 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축하 문자의 행렬, 낯선 발신자 번호

였지만 한결같이 딸의 반 친구들이 보낸 것이었다. 우리 부부는 감동의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정답은 없다고 한다. 내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모님이 “우리 클 때는 말야...”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을 때가 참 싫었던 기억이 있고, 그만큼 내 아이들에게도 틀에 박힌 잔소리는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부가 지키려는 원칙이 결국 그 잔소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다른 부모들은 다 아이들에게 목을 매는데, 유독 우리 부부만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을 과연 내 딸은 얼마나 이해해 줄까?

“다른 애들처럼 아침에 교실로 요구르트 배달해서 먹고 싶어”라고 불멘소리를 할 때 “집에 있는 요구르트 싸 줄 테니 가져가 먹어”는 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달을 원하는 것이었고, 그건 꼭 요구르트가 먹고 싶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사소한 욕구는 부모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왕따가 학교생활 공공의 적이 돼버린 지금에 요구르트를 배달시키지 않고 가방에서 꺼내어 먹는 것 자체가 스스로 왕따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이 모든 부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 온 내 딸, 어느덧 고3 수험생으로 대입 시험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을 짙하게 느낀다. 부디 남은 시간 지혜롭게 잘 소화해 내기를 바라며,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낸다.



story 2

같이 생각해 박요

서정욱 | 수정구 단대동



무성하게 우거진 가로수 잎들. 푸른 빛이 마음의 여유를 주지만 밀동치를 보고 있으면 삭막함이... 쓰레기, 담배꽂초까지.



무척 아름다워졌습니다. 모든 가로수 밀동치가 이렇게 변한다면 테마가 있는 거리, 정말 걷고 싶은 예쁜 거리가 될 것 같지 않나요?

story 3

비전성남 독자마당을 읽고
살맛나는 세상!!

서은주 | 분당구 정자동



지난 204호 비전성남에서 노점상 할아버지께 따뜻한 육개장을 사드린 분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 건어물 행상도 하셨고 고물장사도 하셨는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실 때 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물을 주신 분도 계셨고, 따뜻한 밥이나 국수를 만들어 대접 받은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상하십니다. 그 시절 배가 부른 것보다 마음이 불렀다고요. 아마 노점상 할아버지께서도 마음이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험해져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왔노라고. 지하철 등에서 젊은 사람들과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따뜻한 젊은이가 더 많습니다.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비전성남의 행복한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고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달의 포토



지구온난화로 한여름 폭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우 뒤 흩날물로 뒤덮였던 탄천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땀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은 물놀이장이 개장돼 꼬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송호창 | 분당구 구미동(왼쪽)

최선일 | 성남시청 공보관실(오른쪽)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과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8월 7일(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5~6 이메일 sn997@korea.kr

통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1기 행복마을 리더 공개모집 •기간 : 7월 16일~8월 31일(30명) •자격 : 시 거주 30세 이상의 시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 마을만들기와 관련해 기본적 이해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분 •활동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장기노인요양시설 이용 안내 •대상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한 등급 판정자, 65세 이상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13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하세요 •대상 : 시 거주 만60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법에 의해 등급 판정이 완료된 어르신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적이 어려워 낮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료 : 20일 기준, 일반 16만4,190원, 차상위계층 11만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2만원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 031-731-5564 최대 50% 국가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대상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 •신청 :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제출서류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전액국비, 의류리폼 및 수선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8월 28일 ~ 11월 27일 (화·목·금 09:30~17:00)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분당미곡역 4번 출구 1분 거리) •대상 : 주부, 구직자, 대학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 •국비지원방법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혜택 : 교통비(일 2,500원), 식비(일 3,300원), 취·창업 정보 제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산학협력단 031-711-0009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16기 교육생 모집 •과정 : 요양보호사 신규자반 (9월 5일~ 10월 12일 총6주) •접수 : 8월 20~31일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매, 수강료 40만원(카드결제 가능)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복지사업팀 031-739-3063 분당구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 •연중무휴 운영 : 분당구청 민원실, 금곡동·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 주민센터, AK플라자, 판교도서관, 분당서울대병원(24시간), 정자역 (05:00~24:00) •근무시간 운영 : 야탑1동·정자1동 수내1동·야탑3동 주민센터(09:00~18:00)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082	-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 -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제안을 공모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 의견수렴] ○대상사업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기타 시책사업 등 ○공모기간 : 2012. 8. 1~8. 31 (1개월간) ○제출방법 : 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팝업창), 시·구·동 민원실, FAX (031-729-2349) 접수 가능 [설문조사] ○기간 : 2012. 8. 1~8. 31(1개월간) ○내용 : 중점 투자분야(사업) 우선순위 ○방법 : 시 홈페이지(팝업창) ○문의 : 시청 예산법무과 (전화 031-729-2344) ※ 예산반영 및 추진절차 ○사업제안 공모 → 사이버설문조사 → 현지조사 및 확인 → 토론회 등 타당성 검토 → 예산편성 → 사업추진
---	--	---	---



8.11(토) 수정도서관 인형극 '비밀비밀 윙왕님' - 일시 : 8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3층 시청각실(선착순입장) - 대상 : 지역 어린이와 누구나 - 내용 : 전래동화 '토끼의 간'을 각색한 작품. 판식예방, 식생활개선을 주제로 한 인형극 수정도서관 정보관리파트 031-743-9600	8.7(화), 9.4(화) 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추가회원 모집 1차 추첨(250명) : 신청 7월 23일~8월 5일, 추첨 8월 7일(화) 10:00(인터넷 무작위 추첨) 2차 추첨(250명) : 신청 8월 20일~9월 2일, 추첨 9월 4일(화) 10:00 - 신청 : 홈페이지(www.sneducare.or.kr/echild) 로그인 후 회원신청 - 대상 : 시 거주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시 소재 직장인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가정)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 시청 아이사랑놀이터 031-756-1640
8.4(토), 8.18(토) 아이사랑놀이터 '아빠와 함께 몸으로 놀아요' - 수정 아이사랑놀이터(031-733-1640) : 8월 4일, 18일(토) 10:20~10:50 - 시청2호 아이사랑놀이터(031-754-1640) : 8월 4일, 18일(토) 11:20~11:50 - 분당 아이사랑놀이터(031-8017-1640) : 8월 4일, 18일(토) 13:00~13:30 - 이용방법 : 자유놀이실 신청가정	8.22(수), 8.25(목) ■ 8월 가족사랑의 날 '온 가족 그린 스타트!' - 일시 : 8월 22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센터 시청각실(수정구 복정동 소재) - 내용 : 녹색생활을 위한 첫 걸음 - 에코백 만들기 - 신청 : 8월 6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 대상 : 시 거주 학령기 이상 자녀 둔 가족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팀 031-755-9327(내선 3번) ■ 예비 아버지들이 꼭 알아야 할 '아빠의 탄생' - 일시 : 8월 25일(토) 오후 1~4시 - 장소 : 센터 시청각실(수정구 복정동 소재) - 내용 :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행복한 아빠되기 팁 - 신청 : 8월 2일(목)부터 선착순 마감 -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자녀를 둔 아버지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 031-755-9327(내선 2번)
8.8(금), 8.24(금) 정기 무료 영화상영 - 제32회 8월 8일(금) 오후 2시 마부(1961년작, 신영균, 엄앵란 출연) - 제33회 8월 24일(금) 오후 2시 고고알개(1976년작, 이승현, 강주희 출연) - 장소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지하 1층 대강당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홈페이지 www.family.go.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분당구 2012년 3/4분기 시민 정보화 교육

구분 가수	교육일정	오전 1반(월~금) 10:00~12:00	오후 1반(월~금) 13:00~15:00	오후 2반(월~금) 15:30~17:30	야간반(월·화·목·금) 18:30~20:30
3/4분기 ※ 접수일 : 7월 25일(수) 09:00 ~ 마감 시					
9기	7.30 ~ 8.17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사진꾸미기	야간5(8.6~8.31) 한글 2007실무
10기	8.20 ~ 9.7	엑셀 2007 기초	UCC제작	소셜미디어	야간6(9.3~9.28) 엑셀 2007 중급
11기	9.10 ~ 9.28	인터넷활용	컴퓨터기초(실버)	오피스 2007 기초	야간7(10.2~10.26) 파워포인트 2007
12기	10.1 ~ 10.19	사진꾸미기	인터넷활용	동영상 편집 및 제작	

- 기간 : 7월 30일 ~ 10월 19일
- 장 소 : 분당구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수용인원: 30명) 수강료 : 무료
- 접 수 : 7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 마감(인터넷실명제)
 - ※ 컴퓨터기초 과목은 전화접수(031-729-7078) 병행해 실시
 - ※ 컴퓨터기초(실버)반은 만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
- 교육문의 : 031-729-7075

8·9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
수정구청	스위시맥스(고급) 소셜네트워크(기초) 파워포인트(고급) 엑셀(야간반)	성남시민	9.3 ~ 9.28	월~금 10:00~12:00 월~금 13:00~15:00 월~금 15:30~17:30 월·화·목·금 18:30~20:30	8.16(목)~마감시 인터넷 접수 www.sujeong-gu.or.kr ☎031-729-5073
				월~금 10:00~12:00 월~금 13:00~15:00 월~금 15:30~17:30 월·화·목·금 18:30~20:30	8.13(월)~교육시작 전일까지 www.jungwon-gu.or.kr (생활정보-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방문 접수 ☎031-729-6071
수정도서관	파워포인트(시니어) 한글2007입문	성인	9.1 ~ 9.27	화~금 10:00~11:30 화~금 13:30~15:00	8.22(수)~8.24(금)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2143)
		성인 주말반	9.1 ~ 9.22	토 10:00~12:30	
(사)성남시장애인정보문화협회	PC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자격증심화반 멀티미디어활용 파워포인트 자격증심화반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월·수·금) 09:00~11:00 (월·수·금) 11:00~13:00 (월·수·금) 09:00~11:00 (월·수·금) 11:00~13:00 (월·수·금) 14:00~16:00 (화·목) 09:00~11:00 (화·목) 11:00~13:00 (화·목) 14:00~16:00	수시 모집 ☎031-732-6884

※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 중원도서관은 031-752-3913~7로 문의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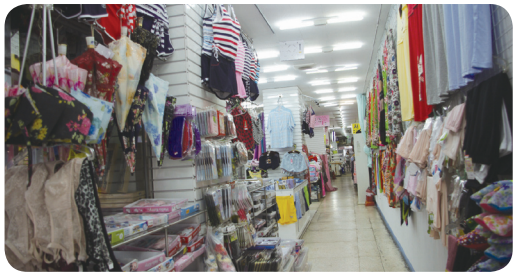
은행2동에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줄 서있는 50여 개의 점포에서 야채, 과일, 생선, 정육, 반찬, 떡, 건어물, 두부, 잡화, 속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다리는 ‘은행동 자유시장’이 있고, 한결같은 이웃의 정다움이 묻어나는 ‘은행시장’이 있다.

은행시장

중원구 은행2동 은행시장을 둘러보면서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믿음사(금은방) 사장님도, 철물점 사장님, 포목점, 중앙 닭집 어르신도…. 4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하다 싶을 만큼 여전한 모습이다.

주위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마을이 형성되고,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는 동안 옳하게 서있어 온 은행시장 만큼이나 상인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웃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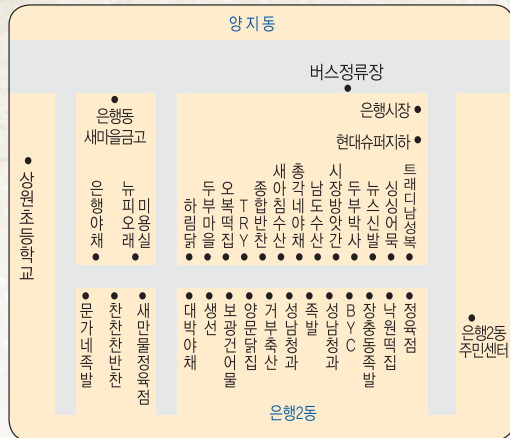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닭집을 운영하고 있고, 마늘통닭 맛은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중앙 닭집 원용분(76) 어르신인 한숨이 깊다. “대형마트는 둘째 치고, 주차 공간 부족과 우후죽순 생겨나는 주위 노점상으로 인해 시장 안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의 고단함을 드러낸다.



은행동 자유(골목)시장

“오징어가 싱싱해 보이네, 얼마죠?”, “네, 세 마리에 오천 원인데 특별히 사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해산물을 판매하는 새아침수산(차인태) 안의 풍경은 신선한 해산물보다 더 싱싱해 보인다.

선민경(47·은행2동) 씨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인들의 인심에 반해서 찬거리를 구입하러 매일같이 자유시장에 나온다”고 한다. 경쾌하고 활기찬 풍경이 시장 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소비자의 3분의 1이 빠져나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후에도 찾아오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친절과 품질,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있다”는 유명이(두부박사) 씨.

“이곳에서 24년간 숙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찾아와 준다는 것에 흐뭇하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소비자께 감사하다”며 “그런 이웃을 위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윤재성(BYC) 씨.

“상품에 대한 좋은 평가와 믿음으로 찾아주는 소비자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우이웃 반찬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배덕영(찬찬찬 반찬) 씨의 말까지 이어 들으며,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활기찬 시장을 이끌어가는 원천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에어컨 가동중(에어커튼 포함)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